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탈바꿈

전주시 · 희망 바르미 사회적 협동조합, 주거취약계층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욕실 개선 지원

전주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희망 바르미 사회적 협동조합(이사장 김인철)은 서서학동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입주식을 28일 가졌다.

희망 바르미 사회적 협동조합의 재원 기부 사업을 통해 그간 외부 화장실을 사용하고 별도의 세면 공간도 없었던 서서학동 장애인 가구는 주택 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욕실과 세면 공간을 갖춘 집으로 탈바꿈됐다.

이와 관련 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부터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발굴해, 외부 후원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욕실 개선을 지원해왔다.

전주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지난 11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에는 25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로 평화 1동과 팔복동, 서서학동에 소재한 3가구에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됐다. 사업 대상 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가구(평화 1동, 팔복동)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1가구(서서학동)이다.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해당 가구들이 미끄럼 방지 타일과 미닫이문, 문턱 제거, 일체형 세면대와 안전바, 욕실센서, 레버형 손잡이 등이 설치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안전하고 편리한 욕실과 세면실 등을 갖추게 된 만큼 대상자 맞춤형 주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철 이사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오은주 센터장은 "앞으로도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가구의 주거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당부

전주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설치가 간편하고 경제적 효율성으로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가구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주택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전라북도에서는 161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의 인명피해(부상 2명)가 발생됐다. 약 11억 원의 재산피해로 이어지며, 화목보일러 화재의 절반이 넘는 84건(52.2%)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겨울철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연물과 보일러 간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기,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하기, 지정된 연료 사용하기, 한꺼번에 많은 연료 넣지 않기, 3개월에 한번씩 연통 청소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

불법성영상물 유포 · 저작권 침해 근절 '최선'

전북경찰청, 한류컨텐츠 무단유포 사이트 '개발자 · 운영자' 3명 검거 2명 구속

전라북도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외서버 기반으로 불법성영상물 및 불법성영화 등 한류컨텐츠 약 26만 여편을 불편으로 유포한 사이트 15개를 적발했다.

그 결과, 개발자 및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해 지난 22일자로 운영자 2명 구속하고 1명은 상반기 불구속 됐다.

검거된 프로그램 개발자 피의자 A씨(남, 20대)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사이트 구축 및 서버관리 대가 등으로 2년 여에 거쳐 약 2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또 사이트 운영자 피의자 B씨(남, 40대) 등은 개발자인 A씨가 제작해 준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성영상물과 영화 등 한류컨텐츠 약 26만 여편을 게시·유포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 배너 광고를 게시해 준 대가성으로 광고스폰서 등으로부터 약 3억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구축하고 연락수단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 받는 등 치밀한 관리·운영을 했으며, 15개 해외 불법사이트를 약 2년 여에 걸쳐 장기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6개월의 수사 끝에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자 등 일당 등 3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하고 불법 유통되는 한류컨텐츠와 불법성영상물 제공사이트 15개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5억9000만 원에 대해선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1차 2억2000만 원) 인용했으며,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 스폰서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경정 김광수)는 "불법성영상물 및 불법성영화 등 한류컨텐츠의 유통경로가 되는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엄정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 추진해 불법성영상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탄소중립 시민교육' 확대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단계별 프로그램 등 운영

전주시는 시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2만 8000명 대상으로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 시민교육은 전주시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과 흡 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같게 해 2050년까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동주민센터와 행정기관, 경로당, 교육기관 등 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처에 탄소중립 시민강사를 파견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일상 속 실천방안을 알리는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각종협회와 협약기관,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 탄소중립 생애주기별 영상교육을 추진하고, 대규모 행사 및 종교활동 시 탄소중립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시청각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 운영, 어린이 맞춤형 탄소중립 아동극을 실시하는 등 교육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0만 명의 시민 대상으로 단계별 탄소중립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탄소 저감 실천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시민분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교육은 15인 이상의 시민모임이나 단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희망 날짜를 정한 후 전화(063-281-2750) 또는 전자우편(jean3976@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는 일회용품 줄이기 중요성과 행동 등을 알리기 위한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해 27일부터 3일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양성 교육

전주시는 일회용품 줄이기 중요성과 행동 등을 알리기 위한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해 27일부터 3일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활동가 수업은 생활폐기물 처리하고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 소각되지 않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시설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고, 체험하는 것이었고, '폐 페트병을 활용한 화분 만들기'도 진행됐다.

임미현 교육생은 "폐기물이 이렇게 처리되고, 재활용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한 체험이었다"며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폐기물의 배출의식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시민 참여야말로 전주시 쓰레기 처리 문제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활동가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환경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해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1년 동안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세계평화의전당 부지에 공공용 화장실 설치

전주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화장실이 세계평화의 전당 부지에 신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치명자산성지와 전주천 사이 산책길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전주를 찾은 여행객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공공용 화장실 내부는 절전형 재실 감지센서 조명과 환풍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에 준한 어린이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등의 설비가 설치돼 있다.

또 전주완산경찰서 상황실과 직접 연결 가능한 음성통화 비상벨도 갖춰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하다.

시는 공공용 화장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로 이용자들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공공용 화장실 설치를 잘 마무리한 후 유지·관리 부서에 차질없이 인수인계할 예정"이며 "앞으로 도시민들이 공공용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관리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